



# ‘인해전술’을 넘어라

슈틸리케호, 오늘 서울서 러월드컵 1차전에서 중국전  
16년만의 본선행 노리는 중국 축구  
3만 응원단 동원 ‘공한증’ 넘기 시도

한국과 중국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 NFC에서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이 그라운드를 걷고 있다. 왼쪽은 가오홍보 중국 감독. /연합뉴스



“중국 응원단으로 뒤덮인 채 경기를 할 수도 있다. 대비해야 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이 4강 신화를 이루는 데는 열성적인 팬들의 헌신적인 응원과 큰 몫을 차지했다. 축구대표팀을 상징하는 붉은색 티셔츠로 경기장을 가득 채운 국내 축구팬들의 열광적인 ‘대~한민국!’ 함성에 태극

전사들은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과 중국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에서는 ‘대~한민국’ 함성 대신 ‘자여우(加油)’의 외침이 더 크게 울려 퍼질 태세다.  
중국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1만5000장의 티켓을 확보하는 등 최대 3만여 명의 중국 팬들이 한중전이 열리는 경기장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월

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어마어마한 당근책을 대표팀에 내건 중국축구협회는 공교롭게도 월드컵 최종예선 첫 상대가 ‘공한증(恐韓症)’에 시달리는 한국이다 보니 ‘흠 같은 원정’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응원단을 앞세운 인해전술을 계획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이번 한중전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에 최대 5만장의 입장티켓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국내 판매분을 고려해 경기장 남쪽 1, 2층의 1만5000석만 중국축구협회에 판매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판매분에 더해 국내 여행사들이 중국 여행사와 계약한 ‘일정응원 패키지 상품’은 물론 국내 거주 중국인들

의 개별 구매까지 합치면 최대 3만 명 이상의 중국팬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중국축구협회의 분석이다.  
이번 경기에 판매되는 입장권은 6만 4000여장 인 것을 고려하면 경기장의 절반 정도가 중국팬들로 들어올 수도 있다.  
“자칫 중국 응원단으로 뒤덮인 경기장에서 경기할 수도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던 슈틸리케 감독의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 응원단은 이미 국가대표 경기뿐만 아니라 프로팀들이 나서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도 대규모 원정응원에 나선 바 있다. 2013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광주주

원들의 결승전 때에는 8000명의 중국팬이 입장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이번 한중전에서 국내 단일 경기 외국인 관중 최대 입장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단일 경기 가장 많은 외국인이 응원한 것은 1997년 11월 서울 잠실경기장에서 열린 1998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한일전이다. 당시 일본팬 1만 명이 입장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4만8000여 장(중국 판매분 1만5000장 포함)이 예매됐다”며 “예약이 마감되고 나머지 수량은 경기 당일 현장에서 판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리우 펜싱 금 박상영 포상금 잔치

협회서 5천만원 지급

금메달리스트 박상영(21·한체대)이 대한펜싱협회로부터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대한펜싱협회는 지난 31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상영(남자 에페 개인)에게 5000만원, 동메달을 딴 김정환(남자 사브르 개인)에게 2000만원의 포상금을 30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아울러 해당 종목 지도자에게도 상당한 포상금을 안겼다. 남자 에페 조희재 감독은 포상금 2500만원을 받았고 남자 사브르 이효근 코치는 1000만원을 받았다.

협회의 총 포상금 규모는 1억 500만원이다. 정부 차원의 포상금과는 별도로.

정부는 리우올림픽 포상금으로 금메달 6000만원, 은메달 3000만원, 동메달 1800만원을 책정했다. 2012 런던 올림픽과 같은 액수다.

박상영은 정부와 협회로부터 총 1억 1000만원을 받게 됐다. 아울러 사방 사가지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연합뉴스



## 최홍만 9년만에 안방 경기 24일 FC 초대 챔피언전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6)이 약 9년 만에 한국에서 경기를 치른다.

최홍만은 다음 달 24일 서울 잠정체육관에서 마이티 모(46)와 로드 FC 초대 무제한급 챔피언전을 치른다. 최홍만은 2007년 9월 서울에서 모와 경기를 치른 뒤 출근 해외에서만 대전했다.

국내 복귀전을 앞둔 최홍만은 “오랜만에 우리나라에서 뛰려니 설렌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제까지 모와 2번 대전한 최홍만은 1승 1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타이틀까지 노린다.

최홍만은 “의미 있는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됐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셨고, 한국에서 입식 격투기를 할 때도 응원으로 힘을 주셨다. 한국에서 종합격투기 경기는 처음인데, 꼭 챔피언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 손연재 추석 연휴 갈라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도전을 마무리한 손연재(22·연세대)가 추석 연휴 기간 리듬체조 갈라쇼를 선보인다.

손연재의 소속사인 갤럭시아이스쇼는 손연재가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6, 17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갈라쇼 ‘리듬믹스 타즈 2016’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갈라쇼에는 리우 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마르가리타 마룬(러시아)과 러시아의 차체다 유망주로 세계랭킹 3위인 알렉산드라 솔다토바가 함께 한다.

소속사 관계자는 “6회째를 맞은 올해 공연은 케이팝, 뮤지컬, 발레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진화해온 갈라쇼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장권은 31일 오후 2시부터 G마켓(www.gmarket.co.kr)과 옥션티켓(ticket.auction.co.kr)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앞서 손연재는 리우 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에서 마룬과 야나 쿠드랴체바(러시아), 간나 리지트디노바(우크라이나)에 이어 4위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보다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 범죄자 된 ‘태극마크’

감독과 한화, 용기를 주며 ‘국민 영웅’으로 자리했던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

국가대표 수영선수의 코치 유모(33) 씨는 지난 28일 만취 상태에서 차량 2대를 잇달아 흡치고 고속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유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대 초반 국가대표를 지낸 유 씨는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모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전담 코치로 일했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A(24) 씨는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런던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경찰은 A씨가 고교생 시절에도 경기도 한 체육고교 수영장 여성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확인이 나섰다.

쇼트트랙은 선수와 코치들이 도박 때문에 대거 연루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국가대표 임모(21) 씨 등 쇼트트랙 선수 18명과 백모(35) 씨 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인터넷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상금 도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일탈을 피하지 못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금



3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여자 기숙사 목욕탕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영 코치 만취 상태에서 차 흡치고 고속도로 난동 수영 선수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 쇼트트랙 선수·코치 도박...후배 폭행 ‘역도계 퇴출’

메달리스트인 사재혁(31)은 지난 3월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재혁은 역도 유망주인 후배 황우만이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며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관대해 부근이 합물되는 등 전지 6주의 상처를 입혔다. 국제무대까지 이름을 떨쳤던 사재혁은 ‘선수 자적 정치 10년’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역도계에서 영구 퇴출됐다.

지난 7월에는 프로야구계 NCD야구

스투수 이태양이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포츠 스타들의 잇단 일탈은 인성교육이나 정규 학습보다는 경기 성적에 목을 매는 한국 엘리트 체육의 비뚤어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체육인끼리만 합숙 생활을 하면서 보편적인 사회 규범과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선수’ 최경주 PGA PO 생존경쟁

내일 도이체방크 챔피언십...18위내 들어가야 3차전 출전

강성훈(29)과 최경주(46·SK텔레콤·사진)가 이번 주에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계속한다.

오는 2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 TPC(파71·7214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은 페덱스컵 랭킹 100위 이내 선수들만 출전, 3차전에 나갈 70명을 추려낸다.

올해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승자인 다니 윌릿(잉글랜드)가 불참해 이번 주 출전 선수는 99명이다.

힘겹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강성훈은 지난주 PO 1차전 바클레이스 대회 마지막 날 맹타를 휘둘러 극적으로 2차전 출전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강성훈의 페덱스컵 랭킹은 88위로 이번 주 대회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야 3차전 출전이 가능하다.

우승하면 물론 좋지만 현실적으로 강성훈이 3차전에 나가려면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서 13위 이내에 들어가야 한다. 강성훈은 한국시간 9월 2일 오후 10시 39분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6), 해럴드 바너 3세와 경기를 시작한다.

페덱스컵 랭킹 83위인 최경주도 안심할 처지가 못된다. 최경주는 지난주 바클레이스에서 컷타락하는 바람에 충분한 포인트를 쌓지 못했다.

최경주는 이번 주 대회에서 18위 이내에 들어가야 3차전에 출전할 수 있다. 최경주는 한국시간 2일 오후 10시 27분 ‘58타의 사



나이’ 짐 퓨릭(미국), 허드슨 스윙퍼드(미국)와 티샷을 날린다.

반면 김시우(21·CJ대한통운)는 다소 느긋하다. 원탑 챔피언십 우승으로 페덱스컵 랭킹을 22위까지 끌어올린 김시우는 이번 주 대회에서 부진해도 3차전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번 주 대회에도 세계랭킹 1위 제이슨 데이(호주), 바클레이스 우승으로 페덱스컵 랭킹 1위로 뛰어오른 패트릭 리드(미국), 장타자 더스틴 존슨(미국) 등 톱랭커들이 출전, 1천만 달러의 보너스 상금이 걸린 플레이오프 우승컵을 놓고 경쟁한다. 지난 바클레이스 대회 도중 무릎 부상으로 기권한 디오펜 우승자 헨리크 스텐손(스웨덴)도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 돌아온다. /연합뉴스